

문재인 정부,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끝까지 고집

쌍용차 복직 노동자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 월급 털어가

국가가 불법, 폭력진압을 벌이다 스스로 입은 경찰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10년 만의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을 빼앗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가 1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복직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쌍용차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섰지만 경찰은 여전히 파업 노동자를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괴롭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정옥 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복직하고 받은 첫 월급에서 50% 떼인 금액을 받았다. 김정옥 사무국장이 받은 돈은 85만 원이다.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복직한 조합원 두 명의 월급 봉투에서 19만771원, 123만 원을 가져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크레인과 경찰 헬기 등 진압 장비가 진압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이유로 20여 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2심에서 11억 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쳐 물어야 할 현재 금액은 21억 원에 이른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쌍용차파업 때 경찰의 진압과정은 결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위법한 장비까지 사용한 불법 진압이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쌍용차파업 진압을 위해 테이저건

과 다목적 발사기, 20만 리터의 유독성 최루액을 쏟아부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장비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위법장비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에 공권력 과잉 행사를 사과하고 손배·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옥 지부 사무국장은 “경찰은 더는 쌍용차 복직 노동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 국가 폭력이 아직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라며 “첫 급여로 가족과 외식을 하고 10년간 돌보준 분들에게 고미움을 표시하려 했지만 엄두도 못 낸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정옥 사무국장은 “노조파괴를 위해 경찰과 회사가 공모했고, 국가폭력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희생당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진정한 화해와 가족의 상처치유를 위해 경찰이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정권에 이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거는 행위는 파업하지 말라는 위헌 조치다”라며 “경찰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최루액 등을 동원해 위법한 폭력진압을 벌였다고 결론 내

렸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경찰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대상을 선정하고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물리는 행위는 손해 회복 목적보다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파업 당시 집행부였다는 이유로 공장점거 현장에 없던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과 김정옥 사무국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장과 면담을 위해 경찰청에 들어갔다.

김득중 지부장은 면담에 앞서 “작년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면담 때, 이 문제를 빠르게 풀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10년 만에 일상을 찾으려 현장에 돌아간 동료에게 가압류가 날아왔다”라며 “지부는 다시 단호하게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고,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알루코 자본, 설 전에 고강알루미늄 파업 해결하라”

지회, 파업 155일·25인 끝장 단식 투쟁 돌입 ... “인수합병 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 사슬 끊자”

금속노조가 박도봉 알루코 회장에게 설이 오기 전에 고강알루미늄 파업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월 29일 서울 서초구 평화빌딩에 있는 알루코 그룹 서울 본사 앞에서 ‘고강알루미늄 전면파업 155일, 알루코 그룹 박도봉이 해결하라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노조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 26명이 28일 새벽 박도봉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알루코 그룹 회장실을 점거를 시도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쌍용차, 하이디스 등 인수합병 당한 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노동탄압 사례를 밝히고, 고강알루미늄을 인수한 알루코 자본이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문제인 정부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알루코 자본이 이렇게 버티지 않을 것이다”라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는



노동자들이 문제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시간은 알루코 자본의 편이 아니다. 금속노조가 고강알루미늄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결의했다”라며 “금속노조는 고강알루미늄 투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끝까지 싸움을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수열 노조 울산지부장은 “장년퇴직이 다가오는 늙은 노동자들이 불벌더위가 시작될 때부터 혹한의 추위가 몰아칠 때까지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알루코 자본 때문이다”라며 “박도봉 알루코 그룹

회장이 설 명절 전까지 고강알루미늄 문제를 해결해서 조합원들이 울산에서 설을 쇠도록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고강알루미늄 부지회장은 “박도봉 자본은 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14년 동안 구조조정을 벌였다. 입출부서만 남은 상황이다. 게다가 임금, 복지 모두 다

내놓으라고 한다”라며 “노숙투쟁 198일, 전면파업 155일을 맞았다. 어제부터 25명의 동지가 끝장 단식에 들어갔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원 부지회장은 “지회 조합원들 평균 나이가 54세다. 늙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싸우고 있다. 박도봉에 대한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라며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들은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과 노조 지부장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평화빌딩 안에서 단식농성 중인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조가 고강알루미늄지회 투쟁을 뒷받침하겠다고 격려했다.

사측과 공모해 금속노조 불법도청한 기업노조

대구지부 전우정밀분회, ‘불법 도청’ 폭로 ...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도청 장치 설치해 분회 감시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전우정밀분회가 사측과 기업노조 간부가 공모한 불법 도청을 폭로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기업노조 한 간부는 회사 교육장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금속노조 분회조합원 총회와 교육내용 등을 오랜 기간 도청해 왔다. 경찰은 사측 중간관리자가 불법 도청에 깊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측과 기업노조는 민주노조인 전우정밀분회를 감시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 도청을 저질렀다. 전우정밀분회는 1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 도청 부당노동행위자 엄중 처벌 및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사측과 기업노조는 장기간에 걸쳐 교육장뿐 아니라 개인 만남까지 불법도청을 자행했다”라고 폭로했다. 분회는 불법도청을 “민주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회사와 어용노조가 공모해

체계적으로 실행한 집단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분회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대표이사과 기업노조 위원장 등 불법 도청 당사자 여섯 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더불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재판거래로 얼룩진 콜텍 부당하고, 연대로 끝장내”

노조 콜텍지회, ‘하루종일 연대투쟁’ ... “결자해지, 박영호 사장이 직접 나서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1월 30일로 4,382일을 맞았다. 콜텍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리라 믿었기에 오랜 기간 투쟁했다고 말했다.

박영호 콜텍 사장이 벌어지지 않은 ‘예상 경영위기’를 핑계로 저지른 부당해고에 맞서 13년째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콜텍 기타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의를 만들기 위한 끝장 투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와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월 30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정리하고 13년 일 값(13)을 되찾자’라는 주제로 ‘콜텍 사태 해결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는 “쌍용차 해고자도, KTX 승무원 해고자도 모두 공장으로 돌아갔다. 모두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피해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이제 콜텍만 남았다”라며 “정년이 오기 전에 복직해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의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에 17개 사업장이 어렵고 긴 투쟁을 이어가



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사업장이라도 끝을 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연대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인근 콜텍지회장과 김경봉, 임재춘 조합원이 조합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이인근 지회장은 “13년째 복직 투쟁을 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못 해서가 아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자본의 발아래 있으므로 어떤 투쟁이라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비판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김경봉 조합원은 “분진으로 뿌연 작업장에서 손가락이 잘려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타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함께 살자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13년째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

다”라고 분노했다.

임재춘 조합원은 박준 가수와 함께 민중가요 ‘홀리’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연대가 없었다면 콜텍 13년 투쟁은 불가능했다”라며 “대전충북지부는 앞으로 콜텍 연대 투쟁에 더 강고한 연대로 보답하겠다”라고 인사했다.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은 ‘정리하고 13년 박영호 사장 책임져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콜텍 본사를 포위하듯 행진했다. 이들은 본사 주변 거리에 정리하고 기간 13년을 상징하는 현수막 130m를 내걸었다. 조합원들은 행진을 마치고 시축에 ‘정리하고 사태 해결 촉구 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본사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지회와 공투위는 결의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60여 개 콜텍기타 대리점 앞 동시다발 팻말 시위 ▲콜텍기타와 연관된 해외 뮤지션들이 동참하는 국제항의 행동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문화 행동, 오프라인 항의 시위 등 직접행동 등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소리 없는 일자리 학살 멈춰라”

노조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공동 기자회견 ... 집권 민주당, 하청 여성 노동자 해고 문제 외면

설을 코앞에 두고 명절 상여금은커녕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하청 여성 노동자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경고했다.

산업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 위기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중년 여성 노동자들이 소리 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기업이 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하청 여성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소리 없는 일자리 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는 1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공동으로 ‘레이테 크코리아, 신영프레스전, 성진씨에스, 양주시립합창단·교향악단 해고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영프레스전에서 44명, 성진씨에스 20명, 레이테크코리아에서 21명이 부당해고 당했다.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장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하청 여성 노동자들이다. 얼마 전 양주시립예술단원들도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됐다.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해 세 번이나 민주당을 찾아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담당 국회의원을 배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그때뿐이었다. 민주당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